

# 언약 공동체의 삶

## 인도자 지침서

엘미라 나좁베 지음  
(elmira Nazombe)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실천하는 믿음·소망·사랑

언약 공동체의 삶: 인도자 지침서  
엘미라 나좁베 (elmira Nazombe) 지음

© 2017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에 모든 권리가 있음,  
United Methodist Women, 475 Riverside Drive, Room 1501, New York, NY 10115  
www.unitedmethodistwomen.org

이 인도자 지침서와 거기 있는 자료들은 내용을 바꾸지 않고 비상업적인  
목적에 위해서는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문구가 발췌된 내용  
속에 들어가야 함: “언약 공동체의 삶 인도자 지침서 에서 발췌함© 2017”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에 모든 권리가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이 책 안에 있는 저작권이 있는 내용들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는 사용할 수 없음.

모든 성경 인용들은 다른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대한 성서 공회의  
표준 새번역 성경을 허락을 받아 사용함.

영어 성경은 표준 새번역과 함께 새 인터내셔널 역본 © 1973,  
1978, 1984, 2011 도 허락을 받아 사용함.

#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목적문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여성들의 공동체로,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체험하며, 창의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친교를 도모하며, 교회의 세계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있다.

## 비전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전 세계 여성,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을 행동으로 실천한다.

## 비전의 실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 그리스도 안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제공한다.

우리는 성장할수 있도록 조직되며, 효과적으로 증거하고 행동으로 이끄는 유연한 구조를 갖춘다

우리는 세계의 여성들과 소녀들이 공동체와 단체, 직장과 교회 및 공적기관의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시킨다.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도록 자비로운 봉사와 옹호를 통해 불공정한 정책과 체제를 바꾸려 일한다.

우리는 적합한 교육과 경험을 제공하여 개인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인도하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 목 차

인도자들을 위한 서론 .....	5
첫 번째 모임: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돌봄과 은총의 언약.....	11
두 번째 모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신실하고 순종적인 언약 백성: 구원과 안전의 언약과 축복의 언약 .....	17
세 번째 모임: 언약을 지킬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국가: 인도와 율법의 언약.....	23
네 번째 모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은혜로 충만한 언약 공동체: 영원한 통치와 영원한 우정과 영원한 언약의 언약들 .....	29
부록	
부록 A: 언약 공동체: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36
부록 B: 마하라트 로리 픽커 나이스(Maharat Rori Picker Neiss)와 케이틀린 스톤(Kathleen Stone)의 대화.....	43
부록 C: 교독문: 시편 40 편 .....	47
부록 D: 십계명 .....	49
부록 E: 시편 106편 (개인 사역).....	51
저자 소개 .....	52

## 인도자들을 위한 서론

“우리의 하나님과의 언약은 마음과 영혼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배우겠다고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언약 공동체의 삶, 서론).

우리는 이 교재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지를 배우는 것에 관한 우리들의 이해를 더 깊이 하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성경적인 언약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공동체들 사이의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이 교재는 이러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어떻게 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 있고 풍성한 것이 되게 할 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 공부는 또한 성경적인 언약 공동체들을 더 자세히 살펴 보고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그들의 두려움과 부르짖음과 요구들과 예배와 찬양들이 얼마나 우리들 자신의 삶에서 나온 것들과 닮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저자 에비 맥도날드(Evy McDonald)는 이렇게 적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들은 우리들이 거룩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실성 혹은 그 결여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다” (제 1 장, “하나님의 시각에서”).

언약들에 관한 설명은 우리들에게 언약 공동체의 의심과 고집만이 아니라 순종과 신뢰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준다. 그것들은 특별한 개인들—아담과 이브,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 다윗과 요나단, 모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그리고 그들이 인도하였던 언약의 수혜자들로서 공동체들과의 언약들이다. 이 교재는 우리들 개인들이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에 대해 성찰해 보고 우리 자신들이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실함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지를 생각하도록 도전하는 중요한 기회이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러한 언약들을 체결하는 것과 관련된 경험들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우리는 또한 그 언약들이 하나님을 다음과 관련해서 어떤 분으로 계시하고 있는 지를 배울 것이다:

- **언약을 맺으시는 분:** 사랑으로 인류와의 관계를 시작하신 분.
- **언약을 지키시는 분:** 언약 백성들이 아무리 자주 신실함을 저버리더라도 그에 상관없이 언약 백성들로부터 결코 돌아서지 않는 분.
- **언약을 지키도록 힘주시는 분:**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상을 책임지고 자기 이웃들과의 공정한 관계를 지키도록 책임질 수 있게 인도하시는 분.

우리는 또한 개인으로서 우리들에 관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자가 제안하듯이 우리가 어떻게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지를 배우는 방법들을 살펴 볼 것이다.

기독교인들로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처음 언약의 언약 공동체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상속자들이다. 이 교재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모든 언약 공동체들—지역 교회,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연합감리교회, 초교파 단체들 등—에 관해서 묵상해보라고 요청한다.

우리들의 바램은 이 교재를 공부하는 동안 모든 사람들과 모임들이 그들 자신의 믿음과 이해를 점점 해 보고 의문시해 보라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기는 이 공부 모두가 모든 사람들을 격려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영적인 이해의 부여주심의 가능성을 자신들을 개방하는 것이다.

## 인도자 지침서: 학습 원리

인도자 지침서의 학습 전략은 요한 웨슬리가 제시한 4기둥 학습모델(quadrilateral learning model)의 모든 요소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성경, 전통, 이성, 그리고 경험. 우리는 성경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다. 우리들은 교회의 사역과 역사에 관해서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다.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현재의 문제들과 갈등들을 이해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에 관해서 우리 자신의 경험의 우물에 기대어 통찰들을 더할 것이다. 성경 본문과 씨름하기 위해서는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 방법을 사용하기를 권한다. 이것은 성경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권하는 성경 공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하기”라고 알려진 많은 기도를 요구하는 성경 묵상 방식이다. 독자들은 매 번 성경을 읽은 후에 (그것도 보통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소리내어 읽게 된다) 추가 시간을 쓸 것을 미리 계획해야 한다. 이렇게 천천히 시간을 가지는 방식의 장점은 놀랍고 풍부한 깊이있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인도자 지침서는 참여적 학습의 원리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는 참가자들의 상호 대화와 교류의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함께 애쓰는 가운데 창조적인 성장을 위한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다. 개인적인 나눔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인도자 지침서에 포함된 토론과 많은 활동 가운데 들어가 있다. 이 공부를 시작할 때 모든 참가자들이 하는 중요한 공헌을 존중하고 비밀을 보장한다는 일정한 규칙을 모임에서 확립하고 각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모든 참가자들은 배우고 가르치고/나누고 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인도자와 참가자들이 서로 배우고 나누는 가운데 함께 가야 하는 여정이다.

인도자/진행자로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모든 개인들이 서로 다른 학습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이 인도자 지침서가 참여적인 학습 방식을 많이 쓰고 있지만 보다 개인적인 방식으로 배우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공헌이 전체 학급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묵상 일지를 쓰게 하는 것이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의 생각과 묵상들을 적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묵상 일지 쓰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 즉 여백에 노트를 한다든지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쓴다든지 - 자신들의 학습을 돕는 방식들을 사용하라고 권한다.

많은 활동들이 대화의 과정/역할 놀이(dialogue processes/role-plays)를 요구한다. 이 말은 참여자들이 성경의 인물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봄으로서 그러한 인물들이 겪었을 경험들을 자신들도 더 깊이 느껴 보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실에서 재미와 웃음을 자아내게 할 뿐만 아니라 본문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해줄 것이다.

인도자 지침서에 있는 활동들은 참가자 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네 명이나 다섯 명이 모이는 작은 모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기회를 가진다. 전체 모임에 보고하는 일은 시간도 걸리고 어떤 경

우에는 지루하기까지 하다. 모임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벽에다 붙이고 몇 분 간 “전시관 걷기(gallery walk)”—수업에 참가한 이들이 죽 벽에 붙은 내용을 보면서 걸으며 모임에서 한 활동의 결과들을 둘러 보는 시간—를 하면 무엇을 배웠는 지 잘 요약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숫자가 많은 모임에서 걷는다면 참여방식의 학습을 장려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큰 강당같은 환경에서라도 참가자들은 둘씩 혹은 가까이 있는 몇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다. 모임을 주관하는 이들과 상의해서 숫자가 많은 영적 성장을 위한 전체 모임의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늘려서 그룹의 “상호작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도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지침서에 제안되어 있는 활동 시간은 모두 참고사항이다.) 이런 상황에서 종이를 사용하고 벽에 붙여서 전시관 걷기를 하는 것이 실제적이지 않다면 프로젝터와 컴퓨터 사용도 유용할 것이다.

참가자들 중에 어떤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잘 참작해서 방에서 걷거나 서거나 하는 것을 요구하는 활동의 경우는 조심스럽게 조직해서 이런 수업 참석자들에게 특별한 짐을 지우지 않도록 조심한다.

## 인도자 지침서의 요소들

인도자 지침서는 언약을 공부할 때 우리에게 맥도날드(McDonald)가 준 여러 방법들 중의 세 가지를 사용하도록 한다:

-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를 더 잘 이해하고자 노력할 때 **익숙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는 일**에 참여하고 관련된 개인들과 공동체들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본다.
- **언약이 오늘날의 현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생각해 본다. (부록 A를 참조해서 예를 들면 어떻게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이 사회 정의의 문제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지를 생각해 본다.)
- **언약이 어떻게 기독교 제자도를 형성할 수 있는 지**, 그리고 그것을 예배와 기도 생활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높여본다.

## 마음 준비

언약 공동체의 삶(Living as a Covenant Community)은 정보도 많고 통찰력도 풍부한 교재이다. 본문을 반복해서 읽을 생각을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책에서 발견할 근본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꼭 빠져들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언약들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연구하기 위한 다른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같은 언약 이야기들을 다른 번역본들을 통해 읽고 연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때로는 말만 바꾸어도 익숙한 내용들에 대해서 새로운 통찰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내가 나 자신의 수업을 준비할 때는 매 본문을 표준새번역과 **메시지: 현대어로 읽는 성경(The Message: The Bible in Contemporary Language)** 두 가지로 읽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되었다. 이런 과정이 시간은 아주 많이 들지만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치가 있고 인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 또 묵상 일지를 작성하면서 인도할 준비를 하면, 자신의 생각들을 적고 본문을 읽거나 성경 구절을 연구했을 때의 반응을 적고 다른 자료들에서 얻은 정보들을 모을 수가 있다. 이 묵상 일지는 각 과를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 아주 유용한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언약에 대해 논의한 다른 저술가들의 자료들을 살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나는 특히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의 저술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의 책, *언약을 맺은 자아(The Covenanted Self)*는 언약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이 현대의 사회 정의 문제들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기독교인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자료이다. 그의 책에서 브루그만(Bueggemann)은 시편 기자들의 글에 주목하라고 한다. 그는 시편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흐름의 메아리를 들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언약 관계는 찬양과 감사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다툼, 그리고 언약을 지키지 못한 언약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까지 들어 있는 관계이다. 시간을 가지고 시편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인도자로서 또 다른 좋은 준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공의의 하나님이 실제 시간 속에서 행동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교재를 공부하는 동안 현대적인 사회 및 정치 문제들, 특히 중동의 현실이 수업 중 토론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준비하는 동안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될 때 어떻게 해야 그 문제들을 가장 잘 다룰 수 있을 지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인트 루이스 유대인 협의회(Jewish Community Relations Council of St. Louis)의 총무인 마하라트 로리 픽커 나이스(Maharat Rori Picker Neiss)와의 인터뷰 (부록 B)와 전국 하부라 위원회(National Havurah Committee)의 하르포 애거(Harpo Jaeger)의 언급(이 교재 6 장에 있는 “한 유대인의 시각” 부분을 볼 것)은 이러한 토론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글들과 역사적인 글들 사이의 차이와 그 둘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 지를 생각해 보라고 권하는 것은 중요하다. 맥도날드(McDonald)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어떤 글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이 쓰여진 시대와 장소를 이해하고 그 글의 전과 후에 무엇이 등장하는 지를 이해하라고 권한다.

배경 준비를 다 마치고 나면 매 과를 준비하여야 한다. 인도자 지침서는 각 과의 다룰 내용을 제시하고 두 시간 과정을 위한 제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인도자는 그것을 자신의 교수 스타일과 생각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교재를 인도하는 동안 인도자는 수업 중에 생기는 일들에 따라 어떤 점이 더 많은 혹은 적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깨닫는 것에 따라 각 과의 계획을 수정하거나 다르게 할 것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각 과를 진행하는 동안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각 모임의 필요에 따라 반응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 예배와 기도

예배와 기도는 각 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이스(Neiss)는 예배는 더 넓은 세상에서의 언약 책임을 고려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인도자 지침서는 인도자들이 예배와 기도 시간을 이런 식으로 교실에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예배 시간은 그 날에 있었던 토론들을 기도의 제단 위에 두는—즉, 우리의 관심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회를 준다. 이것은 기도가 진정으로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한 형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이다: 기도 중에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기도 중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노력해야 한다.

인도자는 예배 제단 위에 혹은 예배 장소에 포함시키기 원하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물들은 각 과마다 참여자들이 예배 시간으로 분명하게 전환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매 과마다 전기로 켜지는 “언약 촛불”을 켜 두는 것은 방안에 성령께서 함께 지속적으로 동행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다. 당신이 가져올 수 있는 혹은 참가자들이 예배 제단을 위해 만들 수 있는 언약의 다른 상징물들을 생각해 보라: 언약 이야기들에서 나온 상징물들로 예를 들면 무지



개를 나타내는 색종이라든지 방주를 상징하는 장난감 배라든지, 창조된 세상을 상징하는 지구본이라든지, 십자가 등등을 생각할 수 있다. 교재를 쓴 맥도날드(McDonald)가 제안한 것 처럼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점점 자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매 과마다 물을 조금씩 “언약 주전자”에 더 부어 채우는 것은 아주 좋은 제안이다. 예배 제단을 덮는 색색의 천은 언제나 중요한 도움이 된다.

## 찬양

찬양은 언약에 표현된 정서나 교훈들의 일부를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시간 중에 사용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찬양은 인도자가 직접 인도해도 좋고 아니면 참가자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즐길 것같은 사람에게 부탁할 수도 있다. 각 모임마다 찬양 제목이 제안되어 있다. 음악은 한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분위기 전환 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 선교학교 교재에 포함된 찬양들은 복사하거나 프로젝트해서 사용할 허가를 이미 받아 놓은 것들이다. 다만 모임에서 사용할 때 저작권 표시를 온전하게 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은 다른 찬양들의 경우에는 찬송가나 찬양곡집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찬송가에 있는 노래들은 특별한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 만나는 장소

장소 정리를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은 학습 과정을 돕는데 아주 중요하다. 가능하면 참가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게 자리를 배치하도록 하고 둘씩 혹은 네 명이나 다섯 명이 그룹으로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방식으로 자리를 만든다. 가능하면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과 해석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둔다.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가장 선호하는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인도자인 자신이 스스로 준비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역본들을 가져올 수도 있다. 사실 스스로 준비하면서 썼던 어떤 자료를 가져다 써도 좋고 참가자들이 이것을 빌려다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리스판스(response)**잡지는 옛날 것이라도 수업 중에 다룬 현대적인 문제들을 다룬 것이면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지식을 존중하기

양면케지는 모임에서 토론한 내용들을 적고 또 그들의 공헌을 존중해 주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종이들은 인도자와 참가자들이 토론한 내용들을 연결시켜 주고 지난 내용을 기억하도록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각 과 진도를 나가는 동안 이것은 인도자에게도 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칠판이나 화이트보드도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종이처럼 영구적이지는 않다. 종이가 없으면 참가자 중에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이 자기들 스마트 폰의 사진기를 가지고 칠판의 내용을 사진 찍었다가 나중에 토론할 때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어떤 교실에서는 프로젝터에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 그러나 아주 큰 모임이 아닌 경우에는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나는 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여적인 학습 과정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자료 진열

벽에 자료를 붙이는 것은 선교학교가 열리는 장소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만약 벽에 걸어 두기를 원하는 구절이나 인용구가 있으면 가까운 복사집에 가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다양한 크기의 복사를 해서 크게 만들어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일단 수업이 끝나면 이 자료들은 자기 교회나 지방회나 연회에서 수업을 가르쳐야 되는 참가자들에게 줄 수도 있다. 인용문이나 질문들은 역시 양면 께지에 써서 걸어 둘 수도 있다. 매일 숙제를 붙여 놓는 곳은 교실 한쪽에 따로 특정한 장소를 정해 두는 것이 좋다.

## 준비물

여러 색의 두께가 다른 마커들을 많이 준비해 두는 것은 언제나 도움이 된다. 지구 환경을 위해서는 노트 필기를 하거나 토론 전 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종이로는 집에서 쓰던 컴퓨터 이면지를 몇 장씩 가져오라고 권해 보는 것도 좋다. 모임에서 같이 토론하는 작업을 적으려는 양면께지를 사용하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된다. 양면 께지들이나 다른 자료들은 선교학교가 열리는 장소에서 허락하는 방식으로 벽에 붙였는 지를 다시 확인해 본다. (어떤 장소는 테이프를 쓰고, 접착제나 압핀을 사용하게 하고 다른 것을 사용해야 되는 곳도 있다).

## 선교학교 전 참가자들과의 연락

선교학교가 시작하기 두 주 전에 참가자들의 연락처를 얻어서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적어도 교재의 첫 몇 장을 첫 수업 전에 읽어오라고 격려하는 편지를 보내도록 한다. 그 편지에 좋아하는 성경 역본을 가져오라고 하거나 수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은 묵상일지를 가져오라거나, 추가 노트 필기를 위해서는 재활용 프린트 이면지를 가져오라는 말도 적으면 좋다. 또 첫 번 모임의 시작하는 질문인, “언약”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미리 집에서 묵상일지에 적기 시작하라고 제안해 보는 것도 좋다.

## 후주

1.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 언약을 맺은 자아: .율법과 언약에 대한 고찰(*The Covenanted Self: Explorations in Law and Covenant*) (미네아폴리스: 포트레스 프레스, 1999), 7쪽.

## 첫 째 모임

#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돌봄과 은총의 언약

### 목표

이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첫 출발점으로 자신들의 경험을 자신들의 말로 표현하여 공동으로 “언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정립해 볼 것이다. 둘째로는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인지를 살펴볼 것이다—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 공동체로서. 참가자들은 마하라트 로리 나이스(Maharat Rori Picker Neiss)와의 대화를 통해서 유대인 공동체가 “언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 (부록 B 참조)를 살펴볼 기회를 가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임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활동의 첫 번째 예와 그것이 오늘날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 우리들 개인의 경험과 히브리어 단어들과 전통적 및 현대적인 유대 공동체의 이해에 따른 “언약”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
- 하나님, 창조, 아담과 이브의 성경 이야기들을 통해 언약 체결이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 맺으시는 방식임을 살펴보는 것.

### 자료

- 찬송가나 찬양곡집
- 참가자들이 이 공부의 목적을 적을 수 있는 인덱스 카드
- 큰 갱지 혹은 포스터 종이들에 목표나 질문들이나 인용문들을 적어서 붙일 것
- 참가자들 이름표
- 양면귀지(Newsprint)
- 재활용 프린트 용지
-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

## 준비

- 방에다 이 모임의 목표와 이 공부의 목표들을 전시한다.
- 벽에다 성경의 중요 구절들을 전시한다. 예를 들면 창세기1:26-28을 현대어 성경(*The Message*)으로 적어 본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성품을 반영하게 하자...’”
- (선택사항)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를 그 뜻과 함께 전시한다: *헤세드(hesed)* (조건없는 사랑) 그리고 *브리트(berith)* (언약).
- 미리 참가자들에게 제 2 장의 서론을 읽어 오라고 부탁한다. 또한 그들에게 지정된 시간에 성경을 읽을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본다.

## 환영

참가자들이 들어올 때, 그들을 교실에 환영하고 인덱스 카드를 주어 자기들 이름과 그날 공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목표 한 가지를 적게 한다. 이것들은 모임이 끝난 후에 검토해 보면서 다음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시작하는 찬양

다음의 찬양 중에 하나를 부른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한영 찬송가* 7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한영 찬송가* 28장.

(다른 찬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자기 소개 및 언약 이해의 나눔 (30 분)

참가자들을 모임에 환영한다. 오늘 수업을 위해서 간단하게 시작하는 기도를 하면 좋다. 그리고 이 공부의 전반적인 목표들을 간략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첨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 물어본다.

소개하는 것은 언제나 모임을 시작할 때 중요하지만 이 공부를 위한 좋은 관계를 맺는데 아주 중요하다. 인도자로서 먼저 어떤 식으로 소개할 지 그리고 얼마나 할지 (보통은 1분 혹은 2분) 미리 시범을 보이는 것이 좋다. 다음의 예는 소개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몇 가지 제안들이다:

- 어떤 이름으로 불리지를 원하는지.
- 살면서 경험한 “언약”에 대한 정의 혹은 경험들 (예: 결혼식을 언약 관계로 생각한다면)

혹은 주거지역 혹은 운동 시설에서 어떤 특정 종교나 인종을 금지하는 제한적인 규약의 경험이나 그런 계약 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는지).

- “교실에서의 언약 맺기”를 제안하면 서로 마음을 열고 포용하며 참여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표하면서도 비밀을 보장하는 배움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언약에 대한 정의와 제안들을 따로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한다 (양면 께지나 칠판 등). 이것들은 선교학교 내내 모임에서 늘 참고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에 둔다. 첫 번 모임에서 인도자로서 당신이 선례를 보이면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지를 보여줄 수 있다. 만약 학습 도우미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시켜도 좋다.

언약 공동체의 삶은 우리에게 언약을 뜻하는 두 개의 히브리어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든다: *브리트(berith)*와 *헤세드(hesed)*. 마하라트 나이스(Maharat Neiss)는 이렇게 말한다. “*브리트(berith)*라는 히브리 단어는 전통적으로 두 당사자 사이에서 한 합의를 의미하는 언약을 일컫었다. 그러나 *헤세드(hesed)*는 자주 쓰이지 않는 단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한 은총 혹은 친절을 베푸신다는 의미의 언약의 더 깊은 뜻을 보여준다.” (부록 B를 보면 *브리트(berith)*와 *헤세드(hesed)*의 의미에 대한 더 많은 설명이 나온다.)

“언약”의 정의와 의미에 관한 목록에다가 사람들이 나이스(Neiss)의 말을 듣고 한 반응이나 질문을 더 한다. 참가자들에게 “언약”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그들이 얻은 새로운 통찰을 요약해 보라고 부탁한다.

## **첫 번 언약: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 돌봄과 은총의 언약 (40 분)**

“우리에게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을 언약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우리들이 그 언약에서 우리의 몫을 감당하도록 도우신다.” (제 1 장, “언약 개관”).

첫 언약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적어도 본문에 관한 두 개의 다른 역본들을 준비하되 그 중의 하나는 *메시지(The Message)*로 한다. 성경 본문을 천천히 읽을 시간을 확보하도록 주의한다. 본문을 한 번 이상 읽는 것이 좋다. 깊은 묵상을 위해서는 각 낭독 이후에 조용히 묵상할 시간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참가자들에게 창세기 1:26-28, 31의 본문을 *메시지(The Message)*의 언어로 다시 천천히 읽어 보라고 한다. 참가자들에게 가만히 멈추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한다. 맥도날드(McDonald)는 창세기 1:26에 나오는 “우리”라는 말이 “하나님의 공동체 성을 지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내부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지적한다... 하나님의 본성의 이런 공동체성은 우리들의 평등하고 조화로운 관계로 더 확대되어 정의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제 1 장, “언약 공동체로의 부르심”). 참가자들에게 시간을 가지고 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묵상할지 혹은 다른 어떤 방법이든지 원하는대로 적어 보라고 권한다:

- 하나님의 어떤 면이 “우리의 형상대로” 혹은 “우리의 모습을 따라”라는 구절에서 떠오르는가?
-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 본성과 하나님이 공동체를 향한 의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그것은 나머지 창조 세계와의 관련에 있어서 언약 공동체(아담과 이브)에게 어떤 요구/책임을 지우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한다”는 말의 뜻인가?

참가자들에게 첫 언약의 두 번째 면인 아담과 이브의 유혹에 빠진 결과에 대해서 물어 보라 (창세기 3). 참가자들에게 “뱀”의 말을 창세기 3:4-5에 나오는 대로 *메시지(The Message)* 역본으로 읽어 보게 한다. “너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알게 될거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거라니까. 선부터 악까지 모든 것을 알게 된단구.”

이 본문에 관해서 다음의 질문들을 물어 본다. 전체 모임에서 나누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응답을 참가자들이 생각할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 당신은 어떤 생각이 아담과 이브 (공동체)의 마음 속에 떠올랐다고 생각하나?
-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여” 창조된 것과 유혹자의 목소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될거야.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지 알게 될거라구”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나? 아담과 이브는 위기가 없어도 되는 곳에서 위기 상황을 자초한 것일까?
- 첫 언약 공동체의 일부가 된 것을 상상해 보라: 자신을 아담의 입장에 두고 (“그 여자가 내게 주었습니다”) 또 이브의 입장에 두어보라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당신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추가적인 변명을 생각할 수 있는가? 그들은 왜 선악과를 먹기로 결정했는가? 그들은 왜 하나님 같이 되기를 원했는가? 그런 일이 우리 공동체에서 혹은 우리 개인들에게서 벌어진 적이 있는가?

자기들이 상상한 변명을 나눌 사람들이 있는 지 물어본다.

##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필요하다면 토론 사이에 전환을 위해 음악을 사용한다. 참가자들이 잠시 몸을 풀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 우리 자신의 삶에 언약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오늘날의 언약 공동체 (25 분)

참가자들의 주의를 *언약 공동체의 삶* 제 2 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언약이 오늘날 기독교 제자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하는 질문으로 돌리고, 참가자 중의 한 사람에게 저자가 개인적으로 건강에 위기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녀가 자신의 길을 찾는데 고집을 부렸던 이야기를 읽어 달라고 부탁한다.

**질문:** 저자의 경험과 아담과 이브의 경험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

참가자들에게 들쭉 짝을 지어 자기들의 신앙 여정에서 있었던 비슷한 이야기들, 자기 자신들 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도록 이끈 위기의 순간들의 경험들을 나누어 보라고 초청한다.

##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는 기쁨과 순종하는 일의 어려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 한 그룹에게는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와 다른 언약 공동체들의 사역들 가운데 기후변화 같은 현재의 위기에 대한 긍정적인 예들을 찾아 보라고 부탁한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이 *환경 보호 지속을 위한 13 단계(13 Steps to Sustainability)*나 *비 저스트 비 그린(Be Just Be Green)*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공동체의 창조세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거나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예로 사용될 수 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현대의 여러 경험들을 돌이켜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우리 자신의 지식(혹은 대중 영합적인 의견이나 기업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논리)을 따르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던 창세기 3 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언약 공동체의 청지기직에 어려움을 주는 장소/기회 등의 목록을 만들어 보라고 한다.

두 그룹 모두에게 부록 A를 토론에 참고 자료로 사용하라고 한다.

두 그룹의 목록들을 모두가 볼 수 있게 전시하고 사람들에게 그룹 토론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걸어 다니면서 한 번 훑어 보라고 권한다.

## 제자도와 언약의 삶을 위한 교훈: 마치는 기도

시편 기자들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사이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시편의 말들은 종종 처음에는 찬양을 하고 다음에는 걱정과 불평을 이야기하다가 다시 찬양으로 끝이 난다. 예를 들면, 시편 40편(부록 C를 참조)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인 동시에 고난 가운데 도움을 구하는 기도이다. 참가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혹은 그룹별로 자기들 자신의 간략한 언약을 만들어, 그 대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시편”을 써보라고 한다. 그 시편에 담겨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언약의 하나님의 돌봄과 은총을 찬양함.
-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순종하는 일의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함.
- 창조된 세계를 돌보는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는” 기쁨을 찬양함.

기도를 서로 나누면서 시작하고, 언약 초를 키고, 언약 주전자에 물을 조금 더한다.

참가자들에게 원을 만들라고 하고 자기들이 첫 언약에 대해 이해한 것을 표현하느라고 쓴 기도문/시편을 큰 소리로 읽도록 한다.

예를 들면:

(찬양) 나는 ...을 베푸신 하나님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공동체의 삶 속에서 언약의 하나님이 베푸신 돌봄과 은총을 찬양한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에서 경험한 자신들의 축복의 예를 말한다.)

(불평) ...고통이 우리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언약 공동체가 경험하는 유희과 도전들을 이야기한다.)

우리를 구하소서 하나님, 속히 오소서. 우리는 궁핍하고 우리는 도움을 원합니다.

(사회 정의를 위한 일과 창조 세계의 기쁨에 대한 찬양을 한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행동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소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순서를 마친 후에 인도자는 이 일을 함께 시작하게 하신 것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다.

## 마치는 노래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한영 찬송가 23장 (다른 찬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두 번째 모임을 위한 준비

참가자들 절반에게 노아의 본문을 읽어오라고 부탁한다: 창세기 6:5-13 과 창세기 6-9:17.

참가자들 나머지 절반에게는 아브라함의 본문을 읽어 오라고 부탁한다: 창세기 12:1-7; 창세기 15:1-6; 창세기 16-17.

참가자 모두에게 언약 공동체의 삶 제 2 장과 3 장을 읽어 오라고 부탁한다.



## **둘 째 모임**

#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과 신실하고 순종적인 언약의 백성: 구원과 안전의 언약과 축복의 언약**

### **목표**

이 모임의 목표는 하나님이 어떻게 위기와 두려움의 시기 동안에 안전과 축복의 언약관계를 더 깊게 하시고 확대하셨는지를 계속해서 탐색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노아와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언약 공동체의 삶 속에서 살펴 볼 것이다. 참가자들은 동시에 어떻게 이런 경험들이 오늘날의 위기들과 상황에 반영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것이다.

- 하나님이 어떻게 위기와 두려움의 시기에 언약 공동체를 위하여 언약 관계를 확대하셨는지를 배우는 것.
- 언약 공동체의 더 큰 신뢰와 신실한 행동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것.

### **자료**

- 여러 성경 역본들
- 찬송가와 찬양곡집들
- 큰 글자 포스터에 쓰여진 인용문들과 벽에 붙여 놓을 질문들로 창세기 6:5-7, 창세기 12장, 15장 등등의 핵심 내용을 포함할 것.
- 여러 색의 마커들
- 양면귀지
- 흰색 및 여러 색깔의 종이들

### **준비**

- 벽에다 수업 목표들을 붙여 놓는다.
- 벽에다 인용문들과 질문들을 붙여 놓는다.

## 시작하는 찬양

아래 있는 찬양들 중의 하나처럼 잘 알려진 노래를 부른다:

- “오 신실하신 주,” 찬송과 예배, 81장 (1절)
-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한영 찬송가, 432장  
(다른 찬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성경 본문을 새롭게 듣기 (30 분)

참가자들에게 자기들의 숙제에 주어진 본문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공부하게 한다. 각 그룹들은 이 시간에 자신들이 토론한 내용의 핵심들을 큰 종이에 적었다가 나중에 전체 모임에서 나눌 것이다.

첫째 그룹은 노아의 이야기를 공부한다: 구원과 안전의 언약 (창세기 6:5-13, 창세기 6-9:17).

둘째 그룹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공부한다: 축복의 언약 (창세기 12:1-7, 창세기 15:1-6과 창세기 16-17장).

각 그룹은 먼저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살펴 본 후에 자기들이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그 가족들이라고 상상하면서 구체적인 본문들을 살펴 본다. 그룹들에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이나 노아의 공동체들이 가졌을 법한 반응들이나 태도들을 적어 보라고 부탁한다.

본문들을 읽은 후에 노아와 아브라함이 이 경험들 동안에 생각했을 법한 내용들을 상상해 보라고 한다. 혹시 독백을 적어 보아도 좋고 자기들 생각을 표현하는 대화를 만들어도 좋고, 순종이나 신실함을 지키는데 있어서의 어려움들이나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에 대한 반응들을 생각해도 좋다. 예: 노아-나는 하나님이 내 가족과 나를 구한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비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다시는 땅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무엇을 할 지 모르겠다. 어쨌든 하나님은 땅을 멸망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아브라함-가족과 친구들의 숫자는 정말 작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 전체를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기라도 하실 것인가?

## 첫째 그룹

그룹 멤버들은 한 명을 골라서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들의 토론을 인도하고 읽을 사람으로 정해야 한다.

첫째 그룹은 노아의 시대와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신실함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노아의 신실함에 비추어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으로 반응하시고 다시는 홍수로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창세기 6:5-7은 노아 시대의 위기를 묘사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이 통제 불가능인 것을 보셨다. 사람들은 악한 일을 생각하고 악한 일을 상상하며 아침부터 밤까지 악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던 것조차 후회하셨다. 그래서 마음이 아팠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망가진 나의 창조세계를 치워 버려야겠다. 아주 짝 쓸어버리겠다. 사람이고 짐승들이고 뱀들이고 벌레들이고 새들이고 - 전체를 다. 내가 그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이 후회된다’” (메시지의 사역).

참가자들이 듣고 있는 동안 첫째 그룹에게 다음을 부탁한다:

- 이 상황에서 노아가 어떻게 느꼈을 지를 상상해 보라.
- 노아가 가졌을 수 있었던 두려움과 걱정들을 생각해 보라.

창세기 6:8-9에서 우리는 노아가 그 주변의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본다. 하나님은 노아에게서 보신 것을 좋아하셨다. 노아는 좋은 사람이었고 자기 공동체 안에서 신실함을 가진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홍수 이후에 창세기 8:20-22에 묘사된 것처럼 노아의 믿음으로 한 반응은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쉬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단의 향긋한 냄새를 맡으시고 무지개 상징을 보내 주셨다 (창세기 9:1-16).

그들이 듣고 있는 동안 첫째 그룹에게 다음을 생각해 보라고 부탁한다:

- 홍수가 끝나고 땅을 발견했을 때 노아가 예배를 드린 것은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
- 노아의 행동은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둘째 그룹

그룹 멤버들은 한 명을 골라서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들의 토론을 인도하고 읽을 사람으로 정해야 한다.

창세기 12:1-3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 공동체에게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과 그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을 따르라고 하신다.

참가자들이 듣고 있는 동안 둘째 그룹은 다음을 생각해 본다:

- 이 축복이 어떻게, 또 왜 아브라함에게 왔는가?
-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고 목축민으로 그룹을 지어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이었을까?
-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올 때 그것은 전체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나는 너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고 너를 축복하겠다. 나는 너를 유명하게 만들겠다. 너는 축복이 될 것이다. 모든 지상의 족속들이 너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2-3, 메시지의 사역).

- 어떻게 그 축복이 나이스(Neiss)가 제안한 것처럼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고 내용을 정해주고 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 수 있는가?
- 어떻게 아브라함과 그 공동체는 축복을 받는 동시에 다른 이들을 위한 축복이 될 수 있었는가?

창세기 15:5-6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을 세는 것처럼 많아 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 본문은 아브라함의 단순한 반응을 이렇게 적고 있다: “그리고 그는 믿었다.”

- 왜 임신하지 못하는 위기가 아브람과 사래만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
- 어떻게 가족의 위기가 언약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었는가?
- 이름을 바꾼다든지 (창세기 17:3-8), 아니면 할례를 요구한다든지 (창세기 17:9-14) 등의 창세기 17장에서 주어진 상징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참가자들에게 벽에 붙여 놓은 그룹 토론의 결과를 보면서 그들이 아브라함과 노아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이 활동으로부터 자기들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는 다음 활동으로 옮겨가는 동안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을 틀어 놓는다.

## 오늘날의 언약 공동체 (30 분)

참가자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도록 도전을 받았던 개인적인 혹은 공동체의 상황을 생각 하면서 그 도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상황들은 언약의 삶을 살고자 노력한 개인적인 경험일 것이다. 먼저 들쭉 짝을 지어 이 경험들을 나누고 (10 분간)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겪은 위기와 신앙의 위기 중에 노아의 경험과 비슷하거나 (우리들 삶의 풍랑들) 아브라함과 비슷 (앞을 알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서있을 때) 했던 이야기들과 그러한 경험들로부터 나오는 중요한 교훈들을 지적 하는 본문들을 나눈다. 참가자들에게 알수 없는 (공동체 내에서의 결과들을 초래할) 상황에 직면해서 유사한 수준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급이나 인종적인 특권이나 인기있는 견해나 언론의 토론 등) 눈에 보이는 것 보다는 믿음에 의지해서 가야하는 오늘날의 언약 공동체의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 (부록 A에서 연합감리교회 연선교회의 예를 참조할 것.)

칠판이나 갱지 위에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을 적어 보거나 아니면 그들이 나눈 경험과 상황을 묘사하는 큰 그림들을 그려본다.

1. 현대 세계의 불확실성과 주변에 악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
2.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경험 속에 체험한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의 상징들.
3. 언약 공동체가 “무지개” 또는 “방주”가 될 수 있는 방법들. 그룹 목상을 돕기 위해서 다음의 질문들을 붙여 놓는다:

- a. 정의의 공동체가 할 행동들은 무엇인가?
- b. 하나님은 공동체에게 현상유지에 도전하라는 부르심을 어디서 하고 계신가?
- c. 언약 공동체는 어디서 꼭 막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가?
- d.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예를 들면 부록 A의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를 참조하라.)

## 제자도와 언약의 삶을 위한 교훈들: 마치는 기도

기도와 예배의 시간으로 옮겨가면서 언약의 초를 키고 언약 주전자에 물을 더한다. 자원하는 이에게 마치는 기도들을 인도해 달라고 부탁한다. 참가자들은 기도로 막 만들어진 세 가지 내용들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나눌 수도 있다.

각 개인들의 기도가 끝난 후에 공동의 응답은 이렇게 한다: 하나님,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마친 후에는 공동체는 이렇게 말한다: 아멘.

## 마치는 찬양

“예수 따라가며,” 온라인 찬송가, 449장  
 “오 신실하신 주,” 찬송과 예배, 81장  
 (다른 찬양으로 대치할 수 있다)

## 셋째 모임을 위한 준비

모세가 산 위에서 경험한 내용을 다루는 교재의 부분을 살펴본다. 맥도날드(McDonald)가 언약 공동체의 삶 제 4 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언약 체결은 모세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언약 이해, 그 축복과 조건들” 부분과 출애굽기 19-20을 읽을 것.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십계명과 율법을 다루는 성경 본문을 다루게 한다: 출애굽기 19장, 시내 산위에서의 모세와 언약 공동체; 신명기 5-6장, 계명의 전수; 신명기 10:12-22,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을 위한 정의; 출애굽기 20:1-17, 경제 및 환경 정의; 그리고 레위기 25:1-7, 땅을 위한 안식년.



## 셋 째 모임

# 언약을 지킬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국가: 인도와 율법의 언약

### 목표

이 모임의 목표는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계명들과 율법들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계약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는 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 자료

- 여러 성경 번역본들
- 다양한 색의 마커들
- 찬송가와 찬양곡집들
- 큰 글자로 프린트하거나 붙여 놓은 시작하는 말들
- 큰 글자로 프린트하거나 붙여 놓은 십계명은 방에 돌아가면서 걸어둔다: 제 1 계명에서 제 3 계명, 제 4 계명에서 제 10 계명, 그리고 가능하면 대계명(Great Commandment)도 붙여 놓는다. (부록 D를 참조)
- 양면귀지

### 준비

이 모임을 위한 목표들과 계명들, 시작하는 말들과 수업 중에 사용할 어떤 인용구들을 다 붙여 놓는다.

## 시작하는 찬양

다음 찬양을 부른다:

“언약의 주 하나님”, 온라인 성경과 찬송 248장 (다른 찬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시작하는 말 (한 목소리로)

-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출애굽기 20:2-3).
-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마가복음 12:30-31).

## 서론

언론인 크리스 헤지(Chris Hedges)는 이렇게 제안하였다. “계명들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신뢰에 기반을 둔 관계로 우리들을 인도한다. 신뢰를 통할 때만 사랑이 가능하다.”<sup>1</sup>

칠판이나 종이 위에 이렇게 질문을 쓴다: ‘기독교인들에게도 계명이 필요한가?’ 5분이나 1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참가자들의 답변을 큰 종이 위에 기록해서 모임 내내 살펴 볼 수 있게 한다.

## 성경 본문을 새롭게 듣기 (1 시간)

언약에 대한 생각의 배경을 설정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출애굽기 19 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에 관한 본문과 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일곱번 등산을 했던 그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부탁한다. (“언약 이해, 그 축복들과 조건들”). 그룹으로서 언약 공동체가 직면했던 위기들의 목록을 만들어 본다. 예를 들면:

1. 광야에서의 칠년에 걸친 방황.
2.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에 대한 공동체의 두려움.
3. 모세가 40일 동안 그들에게서 떠나 있었던 것.
4. 자신들의 두려움을 떨쳐 버리기 위해 우상을 만들고 싶은 유혹들.

부록 D에 있는 구분에 따라 계명들을 나눈 것을 붙여 놓든지 아니면 서로 나눈다. 참가자들을 거기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눈다.



1. 하나님과 관련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계명들.
2. 공동체 안에서의 삶에 관한 계명들.

각 그룹에게 어떻게 모든 계명들이 연관되어 있는 지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공동체가 더불어 사는 방식에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공동체가 같이 사는 방식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반영한다—마음과 영혼과 뜻을 다한 사랑.

모임의 이부분에서 각자가 자기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살펴서 이야기되고 있는 단어들의 뜻을 발견하거나, 새롭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하는 깊은 탐색의 기도 시간을 갖게 한다.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 성경 공부 묵상 방법을 사용해 보라. 눈을 감고 본문을 들어 본다. 이것은 참가자들이 자기들에게 처음 떠오르는 생각들을 묵상일지에 기록하기 좋은 시간이다. 이 때에, 참가자들은 들쭉 혹은 소그룹에서 이러한 계명의 언어들 몇 번 반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간 중간에 멈추고 이러한 강력한 말들을 깊이 새겨보는 것이다. 그들은 이 단어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떠오른 생각들을 적어 보고 싶어할 것이다.

## 제 1 부: 하나님 사랑: 제1-3 계명

먼저 참가자들에게 그룹 혹은 짝을 지어 두 개의 다른 계명의 범주들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다루게 한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들로 시작한다 (15 - 20 분). 다음 성경 구절들을 살펴본다:

-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출애굽기 20:2 - 3).
-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신명기 6:5).
-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출애굽기 20:7).

### 토론:

이 토론 시간에 나눌 것은 들쭉 짝을 지어서 참가자들은 각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자신들의 경험은 무엇인가이다.

- 어떻게 한 개인이 이 계명대로 살 수 있는가?
-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드러내는 예는 무엇이 있는가?
- 그것은 예배와 관련된 것일까 정의의 활동과 관련된 것일까?
- 계명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것을 막는 것을 대표하는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가령 특권과 부와 교육과 국적과 인종 등의 우상일까?
-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

각 소그룹이나 짝들에게 자기들의 응답을 요약해 보라고 부탁한다. 짝끼리 원하면 자기들의 응답을 큰 종이에 적어서 붙인다. 분명히 이것은 자원하는 사람만 하게 한다. 왜냐하면 이런 응답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 제 2 부: 좋은 이웃되기: 제 4-10 계명들

참가자들을 여러 큰 그룹으로 나누어서 언약 공동체의 삶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계명들 나머지를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계명들은 정의의 모습을 가진 다른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각 그룹에게 이웃이나 국가 혹은 전 세계를 지칭하는데 사용하는 전체적인 용어들이면서도 우리들이 종종 사용하는 개인적인 용어들로 그 율법들을 생각해 보라고 부탁한다.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지 생물학적인 부모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더 넓은 세상에서의 연장자들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의사결정의 공동체 과정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록 A참조)

그룹들은 공동체의 규칙들을 다루고 있는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등등에 나오는 본문들을 참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처럼 보이는 사회규칙들을 골라보라):

노동, 노예제도, 안식에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는 계명들 (출애굽기 20:8-11);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출애굽기 20:12); 살인금지 (출애굽기 20:13); 간음금지 (출애굽기 20:14); 도둑질금지 (출애굽기 20:15); 위증금지 (출애굽기 20:16); 이웃의 배우자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는 것 금지 (출애굽기 20:17).

### 토론:

-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웃”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생각해 본다.
- 거짓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전체적/정치적/국가적인 의미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이들을 위한 정의 대신에 국가 이익을 위해 이야기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하는가?
- 거짓을 말하고 흠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구조적, 제도적, 국가적인 행동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도 포함하는가?
-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인을 금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적”을 죽이는 것이 국가 전략의 일부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각 그룹은 전시된 계명들 옆에 자기들이 한 이야기들을 해설과 함께 붙여 놓을 수 있다. 계명들 안에 있는 다른 주제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다른 색의 마커들을 사용하거나 같은 페이지에 여백을 남겨두도록 한다.

## 제 3 부: 한 국가를 위한 경제 및 환경 정의의 이론과 실제

다음으로 우리들은 안식년과 희년을 위한 하나님의 지침들을 살펴볼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본문을 천천히 읽어 본다.

레위기 25:1 - 7 안식년

레위기 25:8 - 9 희년

묵상하는 마음으로 계명들을 읽은 후에 한 번 자문해 보라:

- 어떻게 이런 율법들이 경제 및 환경 정의를 세울 수 있는가?

## 제자도와 언약의 삶을 위한 교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다(언약 공동체의 삶, 제 4장, “언약을 지키는 것의 축복과 그것을 깨는 것의 저주들 [결과들]”).

참가자 한 사람에게 저자가 베스트바이(Best Buy)에서 두 소년을 만난 이야기 (아래)를 읽으라고 부탁한다. 아니면 이 언약을 성취할 기회에 관한 유인물을 나누어 준다.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았던 잊을수 없는 그리고 치명적인 수업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때는 워싱턴 주 시애틀의 바람이 거센 겨울날이었는데 습기가 가득한 찬 바람이 뺨속까지 오들오들 떨게 만드는 그런 날이었다. 내 친구 모니카(Monica)와 나는 베스트 바이(Best Buy)에서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고 있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두 소년을 보게 되었는데 아마 6살과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손을 잡고 가게를 조용히 걸어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남루한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발은 맨발이었다. 갑자기 가게 점원이 그들에게 다가서서 큰 소리를 질렀다. “여기서 나가! 여기는 니들이 올데가 아니야.” 그러나 나는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볼때까지도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점원이 무엇이라고 말할까봐 아니면 무슨 행동이라도 할까봐 겁이났는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한 순간 나는 가게 밖으로 나가 그 아이들을 찾아서 따뜻한 옷가지나 밥이라도 사주려고 했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두 자녀들은 늦은 오후의 어두운 추위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내가 치룬 대가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내가 느껴온 후회일 것이다. 하나님은 그 후회를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필요한 순간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 지를 보여주셨다. 내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저주받은 것은 아닐지라도 나는 분명 축복을 놓쳤다. (제 4 장, “언약을 지키는 축복과 그것을 깨는데 따른 저주 [결과들]”).

참가자들에게 몇 가지 오늘날의 언약 공동체가 하고 있는 사역들의 예를 생각해 보라고 부탁한다. 예를 들면 대량구금, 산모 건강, 경제 정의, 인종차별 등에 관한 위기들에 관한 사역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가 하고 있는 예를 보려면 부록 A 참조). 그리고 계명과 언약 공동체의 책임에 관한 이해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런 문제들을 다루도록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축복을 놓치게 하고 있는 지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 순종 기도 (30 분)

시편106편의 예(부록 E 참조)를 따라서 참가자들에게 이번 시간에 토론된 도전들, 예를 들면 공동체가 경험했을 수도 있는 “포로기”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처럼 거기에 대한 언약 공동체의 반응들을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서 언약 공동체의 지속적인 역사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를 밝히라고 부탁한다. 예: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직면하는 고난을 보셨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 유배된 느낌을 가지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회 공동체 주변에 있는 공동체들에서 살고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지를 보여주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축복과 도움을 필요로하기 때문이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공동체의 축복이 될 수 있으며 공동체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 마치는 찬양

“오 신실 하신 주” 한영 찬송가 447장(다른 찬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넷째 모임을 위한 준비

언약 공동체의 삶, 제 5장과 6 장을 읽는다. 그리고 다음 성경 본문을 읽는다: 사무엘하 7:1 - 17, 예레미야 31, 역대상 17, 시편 89:3 - 4, 사무엘상 18 - 20, 사도행전 10:34 - 43, 그리고 빌립보서 2:1 - 5.

## 후주

1. 크리스 헤지스(Chris Hedges), *고속도로에서 모세를 잃어버림: 아메리카에서의 십계명(Losing Moses on the Freeway: The 10 Commandments in America)* (뉴욕: 프리 프레스, 2005), 6쪽.

## **넛 짜 모임**

###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은혜로 충만한 언약 공동체: 영원한 통치, 영원한 우정, 영원한 언약의 언약들**

#### **목표**

참가자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극단적인 우정을 살펴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통치의 언약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모세와 맺은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더 진전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참가자들은 또한 그러한 언약들과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사이의 연결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 언약공동체/인류와 하나님의 관계의 가장 완전한 표현을 나타내는 지도 생각하게 될 것이다.

-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신 약속의 더 진전된 언약의 형태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고 그것이 오늘날의 현대 교회 구조에 미치는 함축성을 이해한다.
- 다윗과 요나단의 영원한 우정의 언약을 살펴보고 그것이 예수님의 희생의 전조이자 인간 관계의 모범이 된다고 하는 점을 살펴본다.
-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가 영원한 언약 속에서 언약 공동체/인류와 하나님의 관계의 완전한 표현을 드러내는 가를 생각해 본다.

#### **자료**

- 여러 성경 역본들
- 찬송가와 찬양곡집들
- 큰 글자로 쓴 벽에 붙여 놓을 인용문들과 질문들로 창세기 6:5-7, 창세기 12, 15 장 등이 포함된다,
- 여러 색의 마커들

- 양면귀지 종이를
- 흰색 혹은 여러 색의 종이를

## 준비

이 모임의 목표들을 붙여 놓고 브루그만(Brueggemann)의 책, 언약을 맺은 자아 에서 나온 인용구를 붙여 놓는다: “우리는 이웃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에게 매인 사람들이다.”<sup>1</sup>

참가자들에게 예레미야 31:31 - 34을 미리 읽어 오라고 부탁한다.

## 시작하는 찬양

다음의 찬양을 부른다:

복음 성가, “야곱의 축복” (다른 찬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영원한 통치의 언약: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사무엘하와 언약 공동체의 삶, 제 5 장을 살펴볼 것.

사무엘하 7:1 - 17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언약의 네 요소에 대해서 배운다: 영원한 통치, 적의 침입으로부터의 해방, 들어가 살 집, 그 백성들을 위한 땅. 그러나 다윗은 언약권을 안치할 성전을 짓고자 하였다 (사무엘하 7:18 - 29). 언약권은 수년 동안 움직이는 예배 처소였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표시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전은 그의 아들에 의해서만 지어질 것이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참석자들에게 다윗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을 자기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라고 한다. 교회의 건물들과 구조들은 얼마나 중요한가?

- 다윗은 저자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묘사한 그런 심정을 느꼈을까? - 성전을 자신이 완성할 수 없었던 좌절감? 당신도 그런 좌절감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 “교회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가는 장소가 아니다. 교회는 우리 사회의 궁핍하고 최소한의 권리도 갖지 못하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돌보는 활력에 넘친 공동체이다” (제 5 장). 당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진술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험은 무엇인가?

##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영원한 우정의 언약

사무엘상 18-20장과 언약 공동체의 삶, 제 5 장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언약 이해”와 “영원한 우정의 언약”을 살펴볼 것.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은 이상적인 인간 관계의 중요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이 치른 희생들은, 특히 권력의 문제와 부정의의 관계에 있어서 종종 이웃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했다. 그 언약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맺은 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 “거룩한 언약 관계는 우리의 행동이나 선택이 언약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제 5 장, “언약의 요소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언약은 문화와 가족의 충성심을 뛰어 넘고 우리에게 이방인들과 나그네들을 포용하라고 격려한다는 것이다.

-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우정을 상징하는 요소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갑옷을 교환하고, 이름을 교환하고,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 당신은 그런 극단적인 우정의 관계를 맺자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

## 성경 본문을 새롭게 들어보기 (30 분)

영원한 통치의 언약: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사무엘하 7:1-17, 역대상 17장과 시편 89:3-4)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우정의 언약 (사무엘상 18-20장)

위에 언급된 성경들을 살펴 보라.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언약 이야기와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 이야기는 단지 부정의와 호기심과 질투의 예로 가득차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신실성과 우정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들의 예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룹을 둘로 나눈다. 한 그룹에게는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본문에 집중하라고 부탁한다.

- 왜 다윗이 사울을 대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선택이었을까?
- 사울의 질투와 부정의는 다윗의 언약의 맥락에서 볼 때 어떤 점에서 위기였는가?
-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요소들을 생각해 보라: 집과 평화와 영원한 통치의 약속이 있는 나라. 어떻게 이런 요소들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연장인 동시에 확대가 될 수 있는가?

둘째 그룹에게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에 관한 본문에 집중하라고 부탁한다:

- 어떻게 다윗에 대한 사울의 부정의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강화시켰는가?
-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감정은 (“요나단은 그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 [사무엘상 18:1])

다윗이 블레셋인들을 격퇴한 후에 자기 아버지와 의 필연적인 갈등 관계를 형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가?

- 다윗에게 준 요나단의 선물, 그의 겹옷과 병기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각 그룹은 자기들의 통찰들을 큰 종이 위에 적어서 사람들이 걸어나가면서 볼 수 있게 진열한다.

한 10분 간 간략하게 개괄하는 모임을 가지고 참가자들에게 정치적인 경쟁자들과 권력과 특권에 대한 갈등이 부정의의 상황을 만들어 낼 때 그런 극단적인 우정이 요구되는 현대의 예를 칠판이나 큰 종이에 적어 보라고 한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치루신 희생과 어떤 비슷한 내용이 있는가?

## 성경 본문을 새롭게 들어보기 (30 분)

예수님과의 영원한 언약 (예레미야 31:31 - 34)

예수님과 영원한 언약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상황에서 쓰여진 예레미야 31:31 - 34을 큰 소리로 읽어보라고 부탁한다. 그 본문은 새로운 언약이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한다. 참가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역사적인 상황에 관련된 사실들을 상기시킨다. 그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민지배를 당한 때였다. 또 다른 형태의 정치적 및 종교적인 가치관들의 갈등의 위기였다. 이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와 또 다른 언약 관계를 발전시키기에 성숙한 상황의 시기였다.

예수님은 그 언약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은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다음의 제목들을 가지고 방에 붙여있는 종이를 둘러보게 한다: 돌봄, 안전, 등. 각 참가자들에게 마커를 주고 방을 죽 걸어나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본문들과 요소들 중에 첫 언약에서 나온 언약 행동을 반영하는 것이 있으면 적어 보라고 한다.

- 돌봄 - 예를 들면 눈먼 사람을 고치심
- 은총 - 예를 들면 성령의 선물이라는 은총을 약속하심
- 구원 - 예를 들면 귀신들린 여자의 구원
- 안전 - 예를 들면 풍랑을 잔잔케 하심
- 축복 - 예를 들면 성전에서 환전상들의 폭리를 뒤엎으심으로 새로운 사회 질서를 창조하심
- 인도 - 예를 들면 산상수훈
- 영원한 통치 - 예를 들면 관계에 있어서 권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 세리장이와 부자 청년 관원

전체 그룹이 예수님의 언약 행동의 예들을 적게한 다음, 각 개인들에게 일분간 예수님의 언약 성취의 활동을 이야기할 시간을 준다 (때로는 일인칭 화법으로 하게 한다). 이런 예들을 생각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시작하게 한다: “나는... 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 오늘날 그 언약의 의미: 언약 안에서 사는 보람을 탐구하기

언약 공동체를 위한 영원한 언약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브루그만(Brueggeman)의 말, “우리는 이웃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에게 매인 사람들이다.”<sup>2</sup> 라는 인용문을 생각해 보게 한다. 사도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브루그만(Brueggemann)의 해석을 보면, 교회는 다른 공동체가 분쟁을 해결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바울이 믿었음에 분명하다. 하나님과 공동체 사이의 언약 관계 때문에 사무 처리 방식들과 관계를 맺는 다른 방식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웃을 우선시하시는 하나님에게 매인 언약 공동체 (제 6 장)로 사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라는 점을 먼저 긍정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빌립보서 2:1에서 바울은 다음을 실천할 것을 권면 한다:

공동체의 실천사항들...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격려나, 사랑의 어떠한 위로나, 성령의 어떠한 교제나, 어떠한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공동체의 목표...

2.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의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

- 3-4.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공동체의 실천사항들의 목표...

5.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 주신 태도입니다.

참가자들을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 “이웃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참가자들에게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자신들의 삶의 예를 나누도록 한다. (부록 A를 보면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예들을 볼 수 있다.)

## 제자도와 언약의 삶을 위한 교훈: 헌신의 시간 (30 분)

“언약들은 거룩하고 고귀하다. 이 교재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인간들과 맺은 언약들을 살펴 보았다. 아담과 이브,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들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예수님을 통한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 전체를 포용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기반이 된다” (언약 공동체의 삶, 제 6 장, 결론).

네째 모임의 마지막에 그룹이 배운 것들을 하나로 요약해주고, 참가자들로 하여금 서로 연대성을 느끼게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신을 나누는 것은 종종 그룹에게 지속적인 관계의 느낌을 가지게 하고 서로에게 계속해서 책임을 지는 관계를 가지게 해 준다.

그들의 마지막 활동으로 참가자들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언약 공동체 헌신 서약을 적어 보라고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자주를 적고) 공부한 내용과 자신의 묵상일지에 근거해서 필요한 만큼 다음의 활동을 하겠다고 헌신함:

-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심지어 논쟁—는 우리의 창조주이자 언약을 맺으신 분과의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한다.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오래 기도할 것인지 생각해 보라.
- **대변활동:** 하나님의 정의로운 가족 공동체를 대변하는 활동. 언제 어디서 섬길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
- **의도적인 성장:** 영적, 감정적, 그리고 지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성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매주 실천한다. 어떤 내용을 실천할 것이며,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를 고려해 본다.
- **공동체 생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지를 배우고 우리의 삶을 함께 하는데 율법과 계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배운다. 누구에게 다가설 것인지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

## 마치는 예배

언약 초를 키고 언약 주전자에 물을 더한다. 위에 여지를 조금 남겨 두면서 하나님이 언약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계시함을 긍정하고 우리가 언약 공동체에 헌신할 것을 확인한다.

참가자들에게 원을 만들라고 하고 마음에 내키는 만큼 자신이 실천할 것, 또 헌신한 내용을 나누도록 한다.

일단 헌신할 내용을 다 나누고 나면, 그룹은 요한 웨슬리의 언약기도(John Wesley's Covenant Prayer)에 근거한 마치는 교독문을 읽는다.

## 마치는 교독문: 웨슬리의 언약기도 (수정해서 사용함)

한 목소리로 읽는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뜻에 사용하시고,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이들과 함께 두시며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가 당신을 위한 일을 하거나  
당신을 위해 구분되게 하소서.  
당신 때문에 칭찬듣고  
당신 때문에 욕을 먹게 하시며  
가득 차게도 하시고 텅 비게도 하소서.  
모든 것을 가지게 하시고 아무 것도 갖지 말게 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영광과 희생에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내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랍  
고 거룩한 하나님  
언약을 만드시는 분, 언약을 지키시는 분, 언약을 지키도록 힘주시는 이여,  
당신은 우리의 것이며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우리가 지상에서 맺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늘에서도 맺어지게 하소서.  
아멘.

## 마치는 노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한영 찬송가 321장 (다른 찬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축도 (한 목소리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무궁 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에베소서 3:20-21).

## 후주

1.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 *언약을 맺은 자아: 율법과 언약에 대한 고찰* (미네아폴리스: 포트레스 프레스, 1999), 85쪽.
2. 앞의 책, 7쪽.



## 부록 A

### 언약 공동체: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 첫째 모임: 믿음의 응답과 기회의 순간들

##### 환경 정의

- 다섯 명의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원들이 연회와 공동체의 삶 속에서 환경 보호 지속을 위한 13단계(13 Steps to Sustainability)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 총회의 인도자가 되는 훈련을 받았다.
- 록키 마운틴 연회(Rocky Mountain Conference)에 속한 지역 총회 인도자는 남부 우테(Ute) 부족의 독극성 홍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공부하고 일하고 있다.
- 비 저스트 비 그린(Be Just. Be Green) 팀이 홀스톤 연회(Holston Conference)에서 연회 차원에서 환경 보호 지속을 위한 13 단계(13 Steps to Sustainability)를 실천하는 국제적인 나눔과 사역을 시작하였다.
-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젊은 여성들 (21 - 38살)과 함께 신세대 기후 정의 모임(New Generation Climate Justice Group)을 구성하였다. 그들은 5달에 걸쳐서 집에서 기후 변화 문제를 연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자기들의 지역 공동체의 도움을 얻어 더 국제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비 저스트 비 그린(Be Just. Be Green.) 사역은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널리 퍼진 인기있는 여론들과 기업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의견들에 적극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향한 운동을 시작하는 생활방식의 변화와 의도적인 결정들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 자신의 경제적 및 사회적 활동을 점검할 것도 촉구한다.

##### 인종 정의/환경 정의

-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적극적으로 미시간 주 플린트(Flint, Michigan)에서 벌어진 위기 상황과 관련한 정의 대변 사역에 관여하고 있다. 여성교회 및 회원들은 세금 감면, 특히 부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의 부당성과 그것이 모든 다른 이들에게 절약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주 정부의 긴급 구조 활동 대책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으며 공공재에 대한 높은 과세는 대기업이 만들어 놓은 오염으로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사용되고 있고, 구조적인 인종차별은 재정부족에 시달리는 공립학교들, 공공 운송통신 수단의 부족, 높은 산모와 유아 사망율, 그리고 이제는 납중독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의를 영구화하고 있다는 것등을 지적한다.

## 산모와 아기의 건강

- 모든 이들을 위한 지역개발 협의회(Community Development for All People)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Columbus, Ohio)에 있는 국내선교기관(National Mission Institution)인데 새생명의 출산을 존중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영아 사망율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임산부 혹은 영아들을 가진 엄마들을 위해 “첫돌 잔치”를 치루어 주면서 그들을 영아 사망율을 낮출 것으로 기대되는 지원활동과 자원에 연결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이웃봉사원(Neighborhood Services Organization)은 오클라호마시티(Oklahoma City)에 있는 국내선교기관(National Mission Institution)인데, 임산부들과 새로 엄마가 된 여성들에게 수유, 임신, 영양 등등의 문제를 조언하는 워센터(WIC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이 단체는 워(WIC)에서 승인한 먹거리를 파는 사설 장터 바로 옆에 전략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 두 번째 모임: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기: 무지개 언약 공동체/ 정의의 방주

## 산모와 아기의 건강

- 전국 세미나(National Seminar) 참가자들은 출산 결과에 있어서 인종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저소득층을 진료하는 시카고 한 병원의 영아 중환자실을 보존하기 위한 항의 시위에 참여 하였다. 지역 여성교회들도 참여해서 그 병원의 소아과 병동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연합 활동을 하기로 했다.
- 뉴욕 리미트리스(New York Limitless) 모임에서 온 젊은 여성들은 2016년 유엔 여권신장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기간 동안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가 지원한 소녀들의 날 (Days for Girls)을 대변하기 위한 훈련에 참여하였다.

## 경제 정의

- 뉴욕 연회 대표는 임모칼리 노동자연맹(Coalition of Immokalee Workers)과 연합으로 웬디(Wendy) 식당이 자신들이 사들이는 토마토 한 파운드당 일 센트를 더 지불하여 공정 음식 협약을 지원하고 그 식당에 제공하는 토마토를 가꾸는 농장에서는 인권에 근거한 행동 규칙을 실천하겠다는 문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 몇몇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지도자들은 2015년 전국 세미나에 감동을 받고 공정경제연합

(United for a Fair Economy)과 함께 세미나를 열고 있는데, 주제는 “초과 노동과 저임금: 여성, 인종, 그리고 경제”이다. 이것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행동에 동참하라는 자극을 줄 것이다.

- 북일리노이 연회 개체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지도자중의 한 사람은 시간당 최저 임금을 \$15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패스트푸드 식당(fast food industry)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인종 및 성차별에 관련된 정의

- 내쉬빌에 있는 고든 기념 연합감리교회(Gordon Memorial United Methodist Church)는 아동 보호 기금 프리덤 스쿨(Children's Defense Fund Freedom School® Program)과 동역을 하고 있다. 프리덤 스쿨(Freedom School®)은 여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독해능력 향상과 저소득 가정 및 결손 가정 자녀들의 여름 체험을 풍성하게 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6주간의 이 프로그램은 사회 참여에도 강조점을 두고 부모들에게 공립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변화를 위해 일하기를 격려한다.
-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지역 사회 내에서의 정의의 사역을 요청하며 제도적인 인종 차별을 끝내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행동을 위한 지침 중에는 인종간 정의에 관한 대화를 확대하는 방편으로 경찰폭력 방지 인종정의 참여 실천정책(Showing up for Racial Justice Police Brutality Action Kit)을 사용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인종 정의 현장에 대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의무를 재점검하며 사회 정의와 인종 정의의 시각에서 언론을 감시하고 독서 프로그램(Reading Program)을 활용하며 다른 민족들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공부를 매년 하고 있다.

## 세째 모임: 개인과 공동체 위기의 언약 공동체의 사역

### 경제 정의

도둑질하지 말라.

- 엘 프예블로 이민 서비스(El Pueblo Immigration Services)는 미시시피 연회 시쇼어 지방(Seashore District)의 선교 사역인데, 2014년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기도와 절제의 날 보조금(Call to Prayer and Self-Denial Grant)으로 은행에서 거절당하고 소외된 히스패닉 이민자들이 자기들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재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을 돕고 있다. 이것은 재정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이 악덕 사채업자들에게 각종 수수료와 고리채를 너무 많이 물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있다.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강한 손으로... 너를 불러낸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회원들에게 의회에 편지를 써서 도덕적이고 공정한 최저 임금을 마련할 시간임을 알리게 하고 최저 임금을 자기들이 속한 공동체 혹은 주에서 시간당 \$15로 인상하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은 어라이즈 시카고(Arise Chicago)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들과 노동자들 사이의 참여연대에 동참하여 신앙 모임들이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임금이 부당하게 박탈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

## 인종 정의

살인하지 말라.

- 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은 다른 신앙 모임들과 연대해서 고문에 대항하는 전국 종교인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운동은 고문이 폭로되게하고, 독방 감금 반대 전국 종교인 운동(National Religious Campaign against Solitary Confinement) 성명서에 서명을 하고 지역 및 주 행사에 참여할 것을 권하는데 목적이 있다.
- 그레이트 플레인스(Great Plains)와 리오 그란데(Rio Grande) 연회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사형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이다. 네브라스카에서는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지도자들이 주지사가 사형을 다시 도입하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한 철야기도회에 참여하였다.

네 이웃의 집이나, 들판이나, 남녀 종이나, 소나 나귀나 혹은 어느 것이라도 이웃에 속한 것을 탐내지 말라.

- 2008년 총회 결의문, “토착민들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일”에 따라서 옐로우 스톤(Yellowstone) 연회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은 북부 샤이엔(Northern Cheyenne) 부족들과의 화해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1864년 감리교회의 목사였던 존 치빙톤(John Chivington) 대령은 샌드 크릭(Sand Creek)에 있는 비무장 원주민 부락을 침공한 바 있는데 이것을 회개하려는 것이다.
- 전국에 걸쳐서 20개의 연합감리교회 연회들이 원주민과의 관계 치유에 참여하고 있다. 그 중에 오클라호마와 알라바마 연회가 포함되어 있다.

## 어머니와 자녀의 건강

네 부모를 공경하라

- 미국에서 하루에 세 명의 여성이 아이를 낳다가 죽는다. 유색인종과 저소득층과 농촌 가정에서 더 많은 비율로 죽는다—이것은 산업화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치사율이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아직 조직이 없는 19개 주에서 산모 사망 진상 조사 위원회(Maternal Death Review Panels)를 만들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 세계 여러 곳에서 여성들은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돌봄을 청하는 것을 꺼려한다. 다음 4년 동안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부당대우와 무시를 근절하려고 존경받는 산모를 위한 국제 참여 운동에 동참하면서 여성들에게 출산 전, 출산 도중, 그리고 출산 후의 돌봄을 받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 네 번째 모임: 연약 공동체의 행동

### 경제 정의

-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회원들에게 기품있는 노년: 변화되는 미국에서 노년 인구의 증가를 준비하기(*The Age of Dignity: Preparing for the Elder Boom in a Changing America*)라는 책을 읽을 것을 권장한다. 또한 공정한 작업장 기준 만들기에 헌신할 것과 미국 전국적으로 핸드 투 핸드 네트워크 어브 케어링(*Hand-To-Hand Network of Caring*)에 참가할 것을 권면한다.
-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회원들에게 포크드(*Forked!*)라는 여성 식당 종업원들에 관한 책을 읽을 것을 권장한다. 그들은 또한 어떤 식당을 자기들이 자주 가야 하는 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윤리적인 외식을 위한 식당 안내(*Diner's Guide to Ethical Eating*)라는 앱(app)을 다운로드 받을 것을 권장한다. 이 앱은 종업원들에게 공정 임금과 복지혜택을 주는 식당을 소개하고 참여자들에게 옐프(Yelp)를 통해 인증 평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 인증 정의/환경 정의

-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회원들에게 칼라 어브 체인지(*Color of Change*) 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한다. 이것은 2017년에 질병 통제국(*Center for Disease Control*)이 벌린 건강한 가정/납 중독 방지 프로그램(*Healthy Homes/Lead Poisoning Prevention Program*)을 다시 복원시키기 위한 운동이다.
-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회원들에게 자기들 마을에서 안전한 식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라고 권장한다. 그리고 안전한 식수 문제가 유색인종 지역에 얼마나 불공평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를 살피고, 해로운 식수를 먹어야 되는 지역 사회에 주정부와 연방 정부가 그 책임을 지도록 추궁하고 있다.

### 경제 정의/인증 정의

- 가족 구류 센터(*Family Detention Center*)들이 벌이는 부당한 처우와,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가족 구류 종식 운동(*United Methodist Women's Campaign to End Family Detention*)에 응답해서, 2015년 5월, 250 명의 텍사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은 텍사스 주 딜리(Dill)에 모여 가족 구류 센터 밖에서 항의 데모를 하고 가족 구류를 종식할 것을 요구하였다.

## 산모 건강/성차별에 관련한 정의

- 펜실바니아주 해리스버그(Harrisburg)에 있는 이웃 센터(The Neighborhood Center)는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가 지원하는 국내선교기관으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젊은 엄마들을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여름 동안 무료, 혹은 할인 점심이 서스퀘한나(Susquehanna) 연회 소속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로 제공되고 있다.
- 2011년에는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에서 나온 기금으로 짐바브웨에 있는 니아디르(Nyadire) 연합감리교회 병원이 산파학교(School of Midwifery)를 세우도록 보조했다. 거기서 매년 백 명의 산파들이 졸업하는데 분만과 신생아 간호 응급 처치 훈련을 받는다.
- 웨스트 버지니아 헌팅턴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회원들이 허 플레이스(HER Place)를 돕고 있는데, 이센터는 여성교회 회원에 의해서 2013년에 설립된 교육 기관이다. 지역 사회 안에 있는 약물 중독의 여성들과 그 자녀들에게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환경 정의/성차별에 관련한 정의

-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기도와 절제의 날 기금은 농촌 우간다 지역의 여성 모임들이 종자 씨와 도구들을 사고 자기들 지역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방법들을 배우는데 사용되었다.

## 부록 B

### 마하라트 로리 픽커 나이스 (Maharat Rori Picker Neiss)와 케이틀린 스톤(Kathleen Stone)의 대화

이것은 미조리주 세인트 루이스 시의 유대인 공동체 대변실(Jewish Community Relations Council) 실장인 마하라트 픽커 나이스(Maharat Rori Picker Neiss)와 전 연합감리교회 여성국 임원(United Methodist Women executive)이자 현재는 뉴저지에 있는 와튼 연합 커뮤니티 교회(Wharton United Community Church)의 담임 목사인 케이틀린 스톤(Kathleen Stone)이 나눈 대화의 요약이다.

####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대부분 기본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언약을 관계로 본다. 즉 양당사자 사이에서 해야될 일이 있는 관계이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적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언약에서 평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진술이 모순된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는 관대함의 느낌이 갑자기 끼어든다. 이 언약은 사업상의 계약이 아니다. 이것은 실제 하나님 편에서 대가를 치룬 은총의 관계인 것이다.

#### 브리트(Berith)와 헤세드(Hesed)의 의미

브리트(Berith)는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종종 사용하는 단어이다. 토라(Torah, 구약의 오경)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할 때 브리트(Berith) - 두 당사자 사이의 언약에 관해서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일종의 사업 계약처럼 이해한다. 우리는 할례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브리트(Berith)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헤세드(hesed)는 언약 관계에서는 통상 사용되지 않는다. 우리는 헤세드(hesed)를 (언약에 나타난) 사랑으로 이해한다... 그렇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헤세드(hesed)는 사랑이다. 헤세드(hesed)는 실제 일방적인 것이다.

## 언약 관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관계는 사람들에게 자율성을 주시면서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이의 관계는 변해야 한다. 그것이 아담과 이브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한 방식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은 죄가 세상을 뒤덮은 이후에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는 언약들이 이전 언약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맺음으로 시작된 언약과 모세와 맺은 언약은 아주 특정한 개인적인 언약인 반면에 아담과 노아와 맺은 언약은 보편적인 언약이다.

## 유대인 언약 공동체

하나님은 인류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유대 민족이 세상에서 독특한 역할을 하게 하셨다. 그 독특한 역할은 다른 민족들과의 관계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세상에서 책임이 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 당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은 내 주된 관심은 아니다. 내 관심은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책임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리고 그 대신 나는 네가 내 길을 걷기를 원한다... 유대인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 길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몇 가지 취소하실 수는 있지만 그 언약은 결코 파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났지만 결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다.

## 언약과 일상 생활

언약은 매일의 의식 속에서 나의 삶 속에 들어 온다. 내가 안식일과 휴일들을 지키기로 정한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이 관계를 반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의식들이 우리에게 더 넓은 세상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하게 한다고 믿는다. 바로 그 지점에서 유대인으로서 우리들은 시리아 난민들, 기후 변화, 기아, 가난 등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할 책임을 가지게 된다... 내가 안식일에 무교병을 먹을 때 나는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였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물어본다. 자유는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에게 아주 개인적인 질문이 되는 그 무엇이다. 내게는 율법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다.

## 땅

언약 약속의 큰 부분은 특히 아브라함과는 땅만이 아니라 민족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면 민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족은 땅에 매인 것처럼 보인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민족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땅이 없는 민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민족이 되어가는 맥락 속에서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한 민족으로 자라갈 것이며 그 후에 땅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민족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 특별한 책임과 언약

언약을 맺는 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언약은 유대인 공동체에게는 역사적으로 고통의 언약을 의미하게 되었다. 어떤 일인지 유대인으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핍박받도록 선택되었다는 것으로 여겨졌다... 내가 땅과 함께 내게 주어진 나의 특별한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역사적으로 모든 문명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나는 자신을 어떻게 지킬 책임이 있는가? 하는 질문 두개를 묶어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 가나안에 대한 브루그만(Brueggemann)의 해석

전형적으로 우리들은 가나안을 이스라엘의 땅이 되기 이전의 한 곳인 문자적인 장소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이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아주 흥미있게 된다... 이 생각은 우리들이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정당화하는 한 방법이다. 또 어떤 메시지를 일반화하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한다. 그것은 이 한 땅을 정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땅에서의 착취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의 문제가 된다. 나는 그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반대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그것을 아주 문자적인 의미에서 이해하고 있다.

## 이스라엘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존했는가 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흥미있는 주제다. 우리들의 많은 의식들은 거룩한 성전과 예루살렘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더 그렇다. 그들은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아주 고상한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문자적인 땅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들은 성전의 회복, 왕국의 회복,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민족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땅 안에서 가능성이 되기 시작한다고... 많은 유대인들이 느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수 있다고 느꼈다. 그것은 6일 전쟁 이후 1967년 이후에야 사실 진정으로... 우리는 종교적인 시온주의라고 부르는 것으로의 이전을 보기 시작했다. 그렇다, 하나님은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땅을 주셨고 그리고는 우리를 이 땅에서 쫓아내셨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땅이었다. 이제 우리들은 이러한 종교적인 세계관이 정치적인 운동으로 짝이 트는 것을 보고 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이상적인 미래의 개념에 대해서 모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국제 연합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국가를 가질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미조리주 세인트 루이스 시의 유대인 공동체 대변실(*Jewish Community Relations Council*) 실장인 마하라트 픽커 나이스(*Maharat Rori Picker Neiss*)와 전 연합감리교회 여성국 임원(*United Methodist Women executive*)이자 현재는 뉴저지에 있는 와톤시 세인트 존에 있는 와톤 연합 커뮤니티 교회(*Wharton United Community Church*)의 담임 목사인 케이틀린 스톤(*Kathleen Stone*)이 나눈 대화의 요약이다.

## 부록 C

### 교독문: 시편 40 편

#### 찬양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르짖음을 들어 주셨네.  
주께서 나를 절망의 구렁이에서 건져 주시고,  
진흙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셨네.  
내가 반석을 던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그 찬송을 담아 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복되어라, 주님을 신뢰하여  
오만한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에게  
빠져들지 않는 사람.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을 많지도 세우셨으니,  
주님과 견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사나 예물도, 주께서는 원하지 않으시고  
번제나 속죄제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오히려 내 두 귀를 열어 주셨으니,  
이제야 나는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주의 교훈이 율법책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의 법을 제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주께서 아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았습니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의를 나의 가슴 속에 묻어 두지 않았고,  
주의 진실과 구원을 말하였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았습니니다.

## 간구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의 자비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 주십시오.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나의 죄가 나를 덮쳤습니니다. 눈 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기에,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자들이  
모두 다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재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뒤로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하하!” 하면서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받는 그 수치 때문에, 놀라게 해주십시오

## 찬양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르기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 고백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요, 나를 건져 주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표준 새번역)



## 부록 D

### 십계명

#### 제 1 부: 하나님 사랑(출애굽기 20:1-7)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삼사 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 2부: 공동체를 위한 계명 (신명기 5:12-21)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에 모든 짐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 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 **대계명 (마가복음 12:30-31)**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여라.'

## 부록 E

### 시편 106 편 (새롭게 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부어주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고난을 보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때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 손을 잡으신다.  
“다른 이들”이 놀라 바라볼 때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말과  
목적에서 벗어난  
유배지에서 다시 불러 모으사  
우리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고  
당신이 찬양 받으실 때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킬 힘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 축복하소서,  
언제나 축복하소서  
모든 이들은 아멘 할찌어다!  
할렐루야!

## 저자 소개

**엘미라 나좀베(Elmira Nazombe)**는 사회정의와 경제 정의와 인권 분야에서 50년 이상 일해왔다. 그녀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인종 정의 총무로 7년간 섬겼다. 그녀는 여러 초교파 단체에서도 일을 했다. 교회세계봉사회(Church World Service), 아프리카 교회 총연합회(All Africa Conference of Churches), 케냐 전국 기독교 연맹(National Christian Council of Kenya)이 포함된다. 지난 20년 동안은 사회 정의 교육자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녀는 선교학교 교재 중 *세계화와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People's Lives)*을 저술하였고, 또 다른 선교학교 교재인 *도시 문화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God's People in an Urban Culture)*의 인도자용 교재의 공동저자이다. 그녀는 *선교 여정: 자원봉사자 핸드북 (A Mission Journey: A Handbook for Volunteers)*의 저자들 중의 한 명이기도 하다. 그녀는 교육자이며 도시지역 계획자로 훈련받았다. 교육학 박사학위 소유자로, 특히 사회 및 경제적 변혁을 일으키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녀는 현재 뉴저지에 있는 러터스 대학교(Rutgers University)에서 사회 정의에 대한 과목들을 가르치면서 다음 세대의 사회 정의 활동가들을 길러내기를 소망한다.